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15.5’의 새 로정 호위하다’

길림성 각지 전민국가안전교육일 맞아 다양한 행사

최근, 제 11 번째 전민국가안전교육일을 맞이하여 길림성 각지에서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15.5’의 새 로정 호위하다’를 주제로 군중들의 국가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성공안청과 각 시, 현 공안기관, 변방검사소, 민족사무위원회 등 여러 단위들에서는 관련 선전자료 배포, 현장 설명, 퀴즈 맞추기, 장비 전시, 첨단 로봇 활용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군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공안청 · 장춘시공안국

‘전민 국가안전 · 공안 동행’ 집중 선전



최근, 길림성공안청과 장춘시공안국은 장춘세계조각공원에서 ‘전민 국가안전 · 공안 동행’ 집중 선전 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15.5’의 새 로정 호위하다’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치안, 법제, 환경 식품약품수사, 경제수사, 마약단속, 교통관리 등 여러 경찰부문을 조직해 현장 설명, 퀴즈 맞추기, 경찰 장비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보급과 상호 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민의 국가안전 의식과 소양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활동 현장에서 경찰들은 전시판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군중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 등 법률 법규를 깊이 있게 선전했다. 또한 활동은 민생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가정폭력 반대, 미성년자 보호 등 법률 법규를 중심으로 법률 보급을 진행하고 거짓 거래 리온 반환, 고액 중심 사칭, 허위 투자 재테크 등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수법을 분석하고 예방 기술을 전수하여 군중들의 사기 인지 및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폭발물 탐지견의 탐지 시연은 현장의 하이라이트로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훈련사의 정확한 지시 아래 폭

발물 탐지견은 폭발물이 은닉된 가방과 상자를 하나하나 색출하여 신속히 목표물을 찾아냈는바 전문적이고 능숙한 기술로 현장 관객들의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장에는 또 퀴즈 알아맞추기 코너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활동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국가안전에 대한 리해를 더욱 깊게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서 도합 3,000여부의 선전책자를 배포하고 군중을 위해 500여건의 상담을 해주었다. 또한 ‘길림 경찰 이야기’ 위챗 비디오 계정과 ‘사평 경찰 이야기’ 틱톡을 통해 동시 생중계를 진행하며 전 네트워크에서 연 32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생방송 시청자수는 약 7만 명에 달했다. 국가안전은 민족 부흥의 기반이며 사회 안정은 국가 강성의 전제이다. 2026년은 ‘15.5’계획의 첫해로서 공안기관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히 관철하고 국가 정치안전 수호를 최우선에 두며 중점 분야의 안전 관리와 선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수준 안전과 고품질 발전을 총괄하여 국가안전의 인민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길림의 고품질 발전의 현저한 도약과 전면 진흥의 새로운 돌파에 공안의 힘을 기여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제 11 번째 전민국가

안전교육일을 맞아 성공안청에서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15.5’의 새 로정 호위하다’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각급 공안기관을 조직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힘을 발휘하고 군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안전지식과 법치 상식을 널리 알려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추진한다. 기관, 기업, 학교, 지역사회, 존락, 인터넷 등 ‘6대 진지’에 초점을 맞춘 한차례의 ‘국가안전지식 기증 진입’ 강연 활동을 조직하여 계층별 분류 정밀 강연을 진행하고 ‘전민 국가안전 · 공안 동행’ 집중 선전 활동을 개최해 정치안전, 인터넷안전, 생태안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실물 전시, 법률 선전, 상호 문답 등 형식을 통해 군중들에게 국가안전지식을 깊이 있게 선전한다. ‘국가안전 전문가 대강연’ 활동에 국가안전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반사교, 무인기 사용 관리 등 핫이슈를 해설한다. ‘공안이 말하는 국가안전’ 계열 융합미디어 제품을 만들어 공안 개인 미디어, 뉴스 미디어 및 사회 공공 대형 스크린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집중 선전의 질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리전기자



로봇과 함께한 장백현의 국가안전교육 현장

최근 국가안전교육일을 맞이해 장백현입경변방검사소에서는 장백조선족자치현 소광장에서 색다른 선전 교육 활동을 펼쳤다. 첨단기술과 법치 선전이 결합된 이날 활동에 수백명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현장에서는 지능형 로봇 ‘국순’(国盾)이 ‘법률 보급 선전원’으로 나서 생동감 있고 친근한 말투로 <국가안전법>, <길림성변경관리조례> 등 정책, 법규를 설명했다. 로봇은 법률 지식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춤, 무술,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들은 로봇과의 교류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아울러 경찰들은 현장 주민들에게 국가안전지식책자, 출입경 주의사항 등 내용이 담긴 선전자료를 발급했다. 또한 출입경 관리, 국가안전 관련 제보 전화와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제 문제를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정답자에게는



출입경변방검사소의 문화창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조선족 주민은 “예전에는 국가안전이 나오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로봇의 설명도 듣고 퀴즈도 풀면서 누구나 국경 수호에 힘을 보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경찰’련동 선전 방식은 더욱 친근하고 재

미 있는 형식을 통해 국가안전교육이 기층과 군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국가안전의식과 법치관념을 제고시키고 ‘국가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경 안전의 인민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다. /류양(刘洋), 최창남



국가안전은 민족단결로부터... 백산 시민 ‘법’으로 뭉쳤다

최근 백산시민족사무위원회는 백산시도서관 광장에서 전민국가안전교육일 및 민족종교정책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관련 사업일군들은 활동 현장에 자문처를 설치하고 사진 전시, 선전자료 발급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 <길림성종교사무조례> 등 법률 법규를 선전하면서 민족종교사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종교관을 수립하도록 시민들을 인도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서 백산시민족사무위원회는 선전자료 1,000여부를 배포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국가안전의식을 가일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의식과 종교 법치 관념을 가일층 제고하도록 여러 민족 군중들을 인도



함으로써 민족단결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훌륭한 군중 기초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백산시는 민족종교정책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한 선전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

쥐고 민족단결진보사업과 종교 화목을 위한 량호한 국면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천하(于千贺), 최창남



틱톡도 활용... 연길 공안 온·오프라인으로 국가안전 선전



최근, 제 11 번째 전민국가안전교육일을 맞아 연길시공안국은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15.5’의 새 로정 호위하다’를 주제로 공안국 여러 부문과 파출소를 조직하여 다채로운 선전 활동을 펼쳤다. 경찰들은 사회구역, 학교, 상권, 광장, 기업 등 인원 밀집 장소에 현수막,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자료

배포, 현장 설명과 사례 해설을 통해 정치안전, 인터넷안전, 반간첩, 반테러, 사기 예방, 마약단속, 교통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가안전 지식을 군중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12339 국가안전기관 신고 접수 경로를 안내하며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스스로 거부하도록 이끌었다. /리전기자

경찰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내 중소학교를 방문해 ‘국가안전 학교 진입’ 주제 강연을 진행하고 사회구역과 상권에서 군중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문점을 해결해주었다. 또한 ‘연길 공안’ 위챗,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 해설과 홍보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선전 효과를 높였다. 연길시공안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국가안전에 대한 군중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국가안전에는 사소한 일이 없으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을 깊이 각인시켰다. 연길시공안국은 앞으로도 꾸준한 국가안전 선전 교육으로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하여 연길시의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리전기자



도문변방검사소 경찰들 국문에 ‘이동식 법률교실’을



최근, 도문출입경변방검사소 경찰들은 도문통상구에서 전민국가안전교육일 법률 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다. 경찰들은 국문 앞을 오가는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국가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전단지 나누어주고 통상구 실정에 맞추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을 설명하면서 군중들의 의문에 인내심 있게 답변했다. /길림일보

최근, 도문출입경변방검사소 경찰들은 도문통상구에서 전민국가안전교육일 법률 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다. 경찰들은 국문 앞을 오가는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국가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전단지 나누어주고 통상구 실정에 맞추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을 설명하면서 군중들의 의문에 인내심 있게 답변했다. /길림일보

최근, 도문출입경변방검사소 경찰들은 도문통상구에서 전민국가안전교육일 법률 보급 선전 활동을 펼쳤다. 경찰들은 국문 앞을 오가는 군중과 관광객들에게 국가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전단지 나누어주고 통상구 실정에 맞추어 현장에서 법률 지식을 설명하면서 군중들의 의문에 인내심 있게 답변했다. /길림일보

